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개관 1년만에 이용객 6만명

돌봄센터·장난감 도서관·놀이터·가족 요리 교실 등 큰 인기 5일 개관 1주년 기념 '가족이 행복한 시간' 군민 사진 전시회

"가족 행복이 더 커졌어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1년 만에 이용객 6만 명을 돌파하며 가족문화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4월7일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5000여명, 연간 6만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

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으며, 2층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 카페, 실내놀이터가 조성됐다.

3층에는 가족관련 상담과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해남군 가족센터, 돌봄과 품앗이 가족 모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가족 요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네부엌이 있다.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실내놀이터 운영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코칭스쿨, 동네부엌 운영, 누구나 자유롭게 찾고 소통할 수 있는 동네카페 운영은 호응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동네부엌은 자녀와 함께 요리하는 어울림 가족 요리 교실, 1인 가구를 위한 테마쿠킹스쿨,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 맛집 쿠푸쿠우 등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유아와 초등 돌봄과 놀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활동이 가능한 거점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해남군 가족 문화복지서비스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오는 5일 기념식과 함께 2층 소통교육공간에서 '순간포착!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주제로 군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가족 문화 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가족 어울림 공간의 랜드마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울림 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이 실내놀이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경로당 어르신 찾아가는 청춘극장

영광군노인복지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서비스

영광군이 3월부터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영화관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영광군 노인복지관에서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청춘극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의 일정에 맞춰 경로당에서 운영되며,

영화는 어르신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해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제공된다.

앞으로 찾아가는 청춘극장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활동 기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행복과 만족을 높이는 데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농공단지 일대 밤샘 불법주차 극성... 단속은 '뒷짐'

물류 상하차·통행 불편 가중

목포시 일대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물자동차 등의 밤샘주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수산업 원을 들여 전용 차고지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밤샘 불법 주차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목포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의 시·종점, 무안국제공항과 신항만 등이 위치한 물류거점 도시로서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고 불법 주차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

총 360억원이 투입된 이 공영차고지는 휴게동과 주유동 717면, 정비와 세차동에 293면을 주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체력단련실, 휴게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정차고지 이용 때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차고지가 아닌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도심 도로변 또는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있다.

특히 산정·산진농공단지 일대는 화물자동차 등의 밤샘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



목포시 도심에 화물자동차 등의 밤샘주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심에 버젓이 주차된 대형 화물차.

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밤샘주차 가능 장소로 1.5t 이상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대형차량은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시민 A씨는 "농공단지에 물건을 수시로 상하차

해야 하는데 대형 트럭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농공단지 등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이 국비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고군농공단지에 86억원을 투입해 정주·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진도군 제공>

진도 고군농공단지 정주·복지시설 확충

2027년까지 86억원 투입

진도 고군농공단지에 오는 2027년까지 86억원을 투입해 정주·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진도군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하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일반-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문화·편의시설 집적화를 추진한다.

진도군은 고군농공단지 개선사업에 국비 60억원 포함해 총 8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고군농공단지 정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청년문화센터 등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 복합·문화시설을 집적화해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기존 고군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문화·편의 시설로 증축하고 신규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 시설은 농공단지 기업 성장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센터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동전 세탁실, 다목적실, 취·창업보육센터 등을 갖춘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kwangju.co.kr

1만송이 새우란 향연... 16~21일 신안서 축제

압해읍 1004섬분재정원

신안군이 우리나라 자생란인 새우란을 주제로 하는 '2024 전국 새우란 축제'를 16일부터 21일까지 압해읍 1004섬분재정원에서 개최한다.

새우란(蘭)은 뿌리의 마디 모양이 새우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강인한 생명력으로 겨울철 눈보라를 이겨내고 한 송이 꽃을 피우며 봄의 서막을 알리는 우리나라 자생란의 일종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외 새우란 품종 전시관 운영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 이상 배양해 재배한 40여 종의 새우란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

새우란 1축에 30여 송이가 피어 1만여 송이 꽃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사군자(梅, 蘭, 菊, 竹) 테마 축제를 추진하는 4개 시군(광양시, 신안군, 담양군, 함평군)이 운영하는 사군자 테마관도 운영한다.

특별전으로 국립생태원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기후 온난화로 사라지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보존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로 꾸밀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은은한 속에 화려함을 간직한 다양한 새우란의 세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축제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연향변핑크설 새우란.

영암군 섬유질 조사료 연중 공급 체계 구축

농축산부 공모 선정...9억원 들여 영암축협 사료 공장 시설 보완

영암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유질 조사료의 연중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

영암군은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조사료 가공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기존 가공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 보완과 기계장비 보완·수리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신청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종합평가를 벌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암축협 섬유질 사료공장은 총사업비 9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회전형 소형 자동 포장기, 속도 개선·금속검출기 등 로보 적재시설이 보완된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영암에서 생산된 섬유질 조사료의 연중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영암군 측은 기대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암축협 섬유질 사료공장 전경.

기계장비가 부족한 소규모·고령 농가에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상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섬유질 사료는 유용한 미생물 개체 수가 많고, 특유의 향미와 효율을 갖춰 가축 체중 증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생균제에서 가축의 설사와 소화기 질환 등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포함해 영암한우 브랜드 통합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완도청정마켓 봄 이벤트 전 상품 5% 할인 무료배송

완도군이 오는 26일까지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 '치유의 완도! 봄봄봄'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요 이벤트로 행사 기간 전 상품 5% 할인과 무료 배송,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할인 쿠폰 제공, 쿼츠 맞추기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대표축제인 '정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기념해 전 상품을 5% 할인하고, 무료 배송을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완도청정마켓 채널을 추가하면 2000원의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쿠폰은 1만원 이상 상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추후 완도청정마켓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완도 전복과 조미김을 최대 1만원 내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도 준비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 목, 금요일에는 '청정 Day' 기획전을 통해 최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초성 쿼츠 이벤트로 1일 1회 정답을 맞힐 경우 적립금과 순살 전복, 우수 후기를 쓴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순살 전복 또는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완도=정은주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